

이라크, 저유가로 예산감축 흥역

2008년 7월 이후 3차례 하향조정 ... 저유가 지속되면 적자 우려

국제유가의 저공비행이 지속되자 이라크 정부가 2009년 예산을 또 다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라크 의회가 2009년 정부 지출예산을 589억달러로 승인했다고 3월5일 보도했다.

이라크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2008년 7월 800억달러의 지출예산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예산을 훨씬 밑도는 저유가 현상이 계속되자 11월에는 지출예산을 67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연평균 유가가 50달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 후 2009년 1월에는 다시 620억달러로 3월에는 589억달러로 재조정 했다.

연평균 유가를 50달러로 가정한 것으로 국제유가가 이를 밑돌면 이라크 정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월5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43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재정 수입의 80% 이상을 원유 판매수입에 의존하는 이라크 정부는 저유가 현상이 계속되자 고위 공무원 임금을 삭감키로 하는 등 긴축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 급여는 20% 삭감될 예정이며 의원 165명의 급여도 10%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06>